

↑ 코스피 3449.62 (+42.31)	↓ 코스닥 851.84 (-0.85)
↓ 금리 (국고채 3년) 2.417 (-0.026)	↓ 환율 (원·달러) 1380.20 (-8.80) '16일



Economy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당첨요

금융·발전 공기업 ‘칼바람’ 부나… 통폐합TF 출범 임박

정부,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중복 큰 기관중심 통합 검토
신보·기보·수은·무보 거론
한전 등 6곳도 중복투자 심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 뿌릴 씨앗조차 부족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 전성 위기 진단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재배치하 겠다”는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 주일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 합을 제대로 하라고 별도 지시했 다.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 고 공개했다.

말은 곧바로 리스트로 번졌 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 를 못 세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대통령 정책실은 “금 융 공기업도 많다. 기능 조정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1차 관문이 됐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 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공공기 관과 발전 자회사들이 통폐합 1 차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 통령비서실 주도의 TF 출범이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뉴욕거래소 기준 9월 인도분 금 선물이 3682달러를, 현물은 3695달러를 넘기는 등 사상 최고 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임박한 가운데, 기능 중복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시나리오가 물밑 검토되는 양상 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금융 분야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 편안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금 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소 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 술보증기금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 주택금융공

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 되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 중복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 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지원 공 백이나 서비스 약화 우려가 커 중소기업계와 수출기업의 반발 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보 통합시 중복 기능 을 해소하고 보증 효율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 보증 공백이나 지역 영업망 축소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

보 통합의 경우 정책금융 일원화 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출입 기업 지 원 지연이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 성이 나온다.

발전 자회사 구조조정 필요성 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대 상으로 신재생 전환 시대에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 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 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 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 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 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 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 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 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 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 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 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 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한미 관세협상 지연에 車 업계 경쟁력 위기

한국, 25% 관세 부담 지속
일본 15%로 가격경쟁 우위
현대기아 미국 전략 먹구름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길어지 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깊은 고 민에 빠졌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0조)를 투자하 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 으로 관세협상이 조율됐지만 최 종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단기적으 로 악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자 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이날부 터 27.5%에서 15%로 인하됐지 만 한국은 7월 30일 타결한 미국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부두

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는 했지 만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 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 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는 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했다. 여기에 관세 협상

장기화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 서 현지 전략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난 7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에서 25.0%의 관세를 부과받았 지만 27.5%를 부과받은 일본보 다 낮아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을 12.5%포인트 낮추면서 그 격 차는 10.5% 포인트로 역전됐다.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 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당장 토 요타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현지 시장싸움에서 상당한 어려 움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멕시코도 최근 수입품 에 대해 50% 관세 부가를 언급하 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는 국내 기 업들이 미국과 유럽 수출 물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기아가 미국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를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크게 확대될 수 있 다. 업계에서는 25% 관세 부과시 차량 1대당 800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조달 확 대 여력이 있는 완성차 업체와 달 리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인 중 소·중견 부품사들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 부 교수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 차이는 매우 크다”며 “정부 차원 에서 완성차와 부품 업체가 관세 부담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추경 예 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어 “정부의 결정이 미뤄지 면서 당장 서명해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 업계가 스스

로 관세 부담을 해결하라는건 생 태계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분 위기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사 건 등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우 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결국 현대차를 비롯한 삼성전자, LG, SK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 행 중인 우리 기업 전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시 설 확대를 준비 중인 한 국내 기 업 관계자는 “미국 관세 대응과 현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 문 제, 전문 인력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뒤엉키며 기존 투자 계획 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 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돼”
▲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 다… 사법개혁 취지엔 공감” /사진 뉴시스

▲與, 전복 찾아 “李대통령께서 각별한 애정… 상 실감 깊이 공감”
▲추미애 “조희대, 내란 재판 교란 한 통속… 물리 나라”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 는 거짓”
▲국힘 “李대통령,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 속 기록 삭제 은폐 시도”

韓 또 ‘공급망 리스크’ ‘대출규제’ 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겼다

제조업 불확실성 확대

中 희토류 수출 제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단기적 충격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6월 7742톤(t)이던 희토류 수출량은 7월 5994t, 8월 5791t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6월 대비 8월 수출량은 약 25% 감소한 수치다.

中 희토류 수출 두달만에 25% 줄어 레이더·항공전자 장비 고희토류 필수

국내 방위·자동차 업계에 타격 예상 산업계,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절실

특히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는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승인률은 25%에 불과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항공, 방산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지만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70%, 정제·가공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의 경우 단순한 매장량보다 정제와 중간재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한데 이 전 과정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40년까지 네오디뮴 자석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방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항공전자 장비에는

고희토류가 필수다. 유도무기의 조종면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AESA 레이더의 마이크로와 부품 등에도 네오디뮴·사마륨·디스프로슘·테르븀이 들어간다.

해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따라 파낸 상황에서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뢰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주요 전장부품까지 희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기차 한 대에는 많게는 100개의 소형 전동 모듈이 들어가고 상당수가 네오디뮴 계열 자석으로 작동한다.

현대차·기아는 유럽과 북미 생산라인을 확대 중에 있지만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핵심 소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신차 출시 일정과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희토류 비축 확대와 해외 광산업체와의 장기 계약 추진 등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중국이 공급망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전략물자로서 희토류 비축을 확대해 최소 6개월치 이상 재고로 단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외교 협상과 투자 지원도 절실하다. 특히 베트남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한국과 협력 의지가 강해 현실적 파트너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가격 급등과 납기 지연은 물론 산업 전략적 자율성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단순한 원자재 확보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 0.04% ↑ 5개 광역시 -0.14%로 하락폭 확대 전세 오르고 월세 거래 사상최고치

6·27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우세해졌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월세 거래 비중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4% 상승했다.

서울(0.46%)과 경기(0.03%) 등 수도권은 0.18% 올라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5개 광역시(-0.14%)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7월 0.8%에서 8월 0.36%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8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8월 마지막주(8월 25일~9월 1일) 강남구가 전주(0.19%) 대비 0.42% 상승했고, 양천구도 전주(0.11%) 대비 0.16% 올랐다.

KB부동산전망지수도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상승 전망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16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우세해졌다.

대출 규제로 거래는 크게 위축됐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4000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의 거래량이 각각 16%, 21%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22%)을 포함해 수도권이 24%나 줄었다.

KB부동산은 “6월 거래량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정부가 지난 7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내 관망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27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세 대출

도 조이면서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8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수도권이 0.09% 오르면서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비수도권은 6월 이후 두달 연속 상승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대신 전세를 유지하며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로 갭투자가 줄면서 전세물량 자체도 줄었다.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월세 비중이 63.9%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되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1.9%, 비수도권 67.9%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25일 이후 통폐합 논의 급물살 탈 듯

》1면 ‘금융·발전 공기업...’서 계속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전공기업만해도 앞으로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발전 공기업을 2개 축으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시 지역 고용 축소와 투자 차질이 우려되고,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공공기관은 33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공

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이다. 순정부담액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되면서 덩치 줄이기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정부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은 녹록치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협의가 필수적이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본사 이전·일자리 축소 등 지역 현안과 노조 반발도 걸림돌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TF가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 정책금융·에너지 전환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목표와 기관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5일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TF 가동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1차 개혁 대상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의회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완성차 수출액 역대 최대… 美·북미 두 자릿수 감소 ‘찬물’

산업부, 8월 자동차산업 동향
친환경차 중심 EU·아시아 질주
美, 日 관세 인하… 韓 25% 유지
장기화시 K-완성차 경쟁력 ‘흔들’

8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북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트럼프 발 관세 여파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로 향후 수출 부진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 역시 477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지역별로는 온도가차가 뚜렷했다. 북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되지만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로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수출액은 2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3% 감소했고, 대비 수출은 20억9000만달러로 15.2% 급감했다.

1~8월 누적 대비 수출액 역시 20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나

줄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수출 흐름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다.

특히 일본의 대비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6일(현지시간)부

터 15%로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로 유지되면서 관세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8월 유럽연합(EU) 수출액은 독일(+118.7%), 스페인(+54.5%), 네덜란드(+110.3%)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54.0%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타 유럽 지역도 영국(+115.7%), 튀르키예(+96.1%)의 판매가 두 배 가까이 뛰면서 73.2% 급증한 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시장 역시 9.3% 늘어난 5억9000만 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000대, 21억70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6.6%, 29.3%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만2500대, 8억2000만 달러로 78.4% 급증하며 반등세를 이어갔다. E

V3와 캐스퍼(수출명 인스터) 등 소형 전기차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선전한 영향이다.

내수판매는 올해 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 대비 8.3% 증가한 13만9000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는 36.1% 증가한 7만대가 판매되며 8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50.7%를 차지했고, 그 중 전기차는 전년동월 대비 55.7% 대폭 증가하며 2만4000대가 판매됐다. 특히 수소전기차 판매는 올해 6월 신형 넥쏘가 출시된 이후 7년만에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14만1000대로, 전년(2024년) 연간 판매량인 14만2000대에 육박했다.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량, 내수판매량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32만1000대를 기록, 2013년 이후 8월 생산량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방산, 동남아 등 수출 포문 정책 변화·계약 신뢰도 ‘지뢰’

베트남·필리핀 등 수출 계약 체결
제도·재정적 불안정성 리스크 상존
전문가들 “정부가 관리·지원 나서야”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교역을 넓히고 있으나 각국의 정책 변화와 국가 간 협력 구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동남아 국가들과 연이어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계약 규모는 K9 자주포 20문에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6월 필리핀 정부와 약 7억 달러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동남아는 한국 방산이 2010년대부터 틈새 전략을 통해 공을 들여온 핵심 시장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태국에 장비 공급 등으로 교역을 넓혔다. 최근 러시아 제재로 기존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던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이 구매처를 다변화하면서 한국이 대체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방산 수출은 현재 동남아·중동·유럽으로 권역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동남아 방산 시장은 재정 리스크와 함께 계약 이행 신뢰도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 지역은 정권 교체나 관련 고위직 인사 변동이 잦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안정적 이행이 보장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지연이나 조건 변경 등 계약 이행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로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치·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아프리카나 일부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도·재정적 불안정성이 계약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20% 부담을 약속했지만 납부 지연과 감액을 요구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5년 6월 KF-21 분담금을 약 6000억원으로 낮추는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다른 나라 무기 도입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방산박람회(IDEF) 2025에서 5세대 전투기 'KAAN'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의 J-10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시장이 유망한 만큼 시장 확대를 이어가려면 개별 국가의 정치·재정 환경에 맞춘 맞춤형 대응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동남아 시장은 재정 리스크뿐 아니라 계약 신뢰도 등 변수가 있어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불 보장, 세부 이행 조건, 특수 조항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기업들이 동남아 각국과 체결하는 방산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은 어떨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의 마음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모든학교 상담(교)사 배치 찾아가는 상담소운영

모든학년 사회정서 교육운영

AI 마음일기 + 종합심리 검사지원

응급구조단 위기지원단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사업 + 치료비지원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병원학교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

고객만족 최고·누적방문 900만... 진로체험 메카 우뚝

K-퍼블릭 탐방

한국잡월드
Korea JobWorld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공공기관들의 업무중복과 효율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압박과 통폐합 논의는 공기업에 생존을 위한 경쟁력 입증을 요구한다. 본지는 공기업별 현안을 짚고,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공기업들이 어떤 전략과 혁신으로 위기를 넘어설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됐다”

한국잡월드가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던 기관이, 이제는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과 경영평가 상위권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해 한국잡월드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4점을 기록, 최고등급인 '우수'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우수'를 받은 곳은 한국잡월드가 유일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찾은 방문객은 96만 명으로 개관 이래 최대치였고, 지난 7월에는 누적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병균 이사장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이런 변화다. 이 이사장은 “모든 성과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미래 세대가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잡월드가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객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설계

잡월드는 지난해부터 ‘고객경험관리(CX/UX) 고도화’를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방문객이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체험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까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혁신팀을 신설해 고객 의견을 실시간 수집하고, 단기·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체험 위

주였던 기존 운영 방식도 바꿨다. 동행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 휴게공간, 충전기, 도서 비치 공간을 늘렸고, 할인 프로모션과 정기 사은 행사도 열었다. 잡월드 부지 내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5곳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해에만 21만 명이 다녀갔다.

현장경영 2년, 직원·노조 공감대 형성
서비스 혁신팀 신설, 고객경험 체계화
콘텐츠 만족도 4.7점, 교육질적 도약
교사·학부모 맞춤 서비스 편의 강화

인솔 교사를 위한 맞춤 서비스도 강화했다. 대규모 단체 체험에 앞서 사전 안내와 답사 서비스를 제공해 체험 진행의 혼선을 줄였다. 이병균 이사장은 매주 현장에서 교사들과 직접 차담회를 갖고 개선점을 청취했다.

잡월드는 체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복 전면 교체, 롤플레이팅 현실감 강화, 최신 직업 트렌드 반영에 집중했다. 어린이·청소년 체험관에는 신규 체험실이 속속 들어섰고, 미래 직업관도 새로 구축됐다. 그 결과 콘텐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05점을 기록했다.

또한 단순 체험을 넘어 미래 유망직업과 교

과 과정 개편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숙련기술 멘토링 확대 등 교육적 깊이를 더했다. 잡월드가 직업을 ‘보여주는 공간’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위한 준비의 장으로 자리잡아가는 이유다.

◆ 경영평가 최하위서 3위로

눈에 띄는 변화는 경영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수년간 노동부 산하 기관 평가에서 꼴찌를 맴돌던 잡월드가, 지난해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 이병균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임 이사·노조·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션·비전·전략과제를 새로 짰다.

이 과정에서 예산 29억 5000만 원 증액, 마케팅전략팀 신설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장 중심 경영’에서 시작됐다.

취임한 날부터 매일 체험관을 직접 돌며 방문객과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 지금도 매일 체험관부터 안내데스크, 공연장과 주차장까지 현장을 도는 그의 걸음 수는 하루 평균 1만 보를 훌쩍 넘는다.

발걸음마다 현장을 방문하는 학부모, 교사들에게 직접 들은 의견이 쌓여갔다. 이병균 이사장은 “현장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최전선”이라며 “사무실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기획해도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병균 이사장은 노조와의 협력적 소통에도 힘을 쏟았다. 자회사인 한국

잡월드파트너즈와 함께 ‘모자회사 노사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자회사 직원들과 합동 TF를 운영했다. 고객 응대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 회의 체계화, 효율적 인력 운영 기준 마련, CS 캠페인 강화도 추진했다.

이처럼 잡월드 내부와 자회사 직원이 함께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조직 전체의 동력이 커졌다. 새 미션과 비전은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수립돼 공감대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 연간 방문객 100만 돌파 목전

잡월드의 누적 방문객은 개관 13년 만인 올해 7월 9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 96만 명은 사상 최대치로, 연간 100만 돌파가 눈앞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체험 인원 증가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객이 10% 수준으로 급감했던 시기,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잡월드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연간 100만 시대 임박, 사상최대 기록
미래직업관 프로그램 등 체험 다양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족 체험 명소화
AI·디지털 전환 대응, 국가 허브 지향

잡월드 관계자는 “직업체험관을 넘어 진로 교육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국가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잡월드가 지난 2년간 거둔 변화는 뚜렷하다. 체험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잡월드 단독 진행에서 상호협력 체계로, 단순 직업 소개에서 미래 직업 전망 제시로 나아갔다.

하지만 성과가 곧바로 안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방문객 100만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고령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다음 과제다.

이병균 이사장은 “잡월드는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허브가 돼야 한다”며 “고객과 현장, 그리고 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성남시립교향악단 뮤직페스티벌.



카카오모빌리티 인터랙티브 무료 전시관.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이예원
Yewon LEE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o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주춧돌”

李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의 주재
“세종 집무실 건립 차질없이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 집무실과 세종(국회)의 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의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할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 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의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가 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패권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與,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가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필리버스터·李 대통령 탄핵 검토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도화자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찬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자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조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옹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美 근로자 구금·한미통상협상’ 최대 화두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韓 공장 표적·대미투자 금액 등 질문
조현 “美, 이민 문제로 변한 것 같아
동맹국에 협력하던 과거 모습 아냐”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였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

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쥐야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나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

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이스온

BNK금융, 해양수도권·중앙포 개척 ‘투트랙’ 승부

동남권 조선·해운·플랜트 지원
부울경 특화 전략으로 동반성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금융 확대
카자흐스탄 진출로 신시장 공략

BNK금융이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목표에 발맞춰 지역 핵심산업에 투자를 늘린다.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금융’ 공급 확대 및 중앙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인구 감소 및 산업 유출로 지방금융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만큼 지역 동반성장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 ‘해양수도권’ 전략 동행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전략 발표 이후 조선·해운·해상플랜트 등 지역 핵심산업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 달에는 1조원 규모의 ‘BNK힘찬도약펀드’를 조성해 지역 내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 이달 들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 해양기업 전용상품 개발에도 돌입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시작으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운에 특화된 부산, 조선·해상플랜트에 특화된 울산·경남을



BNK부산은행 외국인서포터스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연결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은 지방금융 특유의 중소기업 대출 전문성, 지역 특화 전문인력 등을 앞세워 정부의 해양수도권 목표에 발맞춘 금융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7월 투자그룹을 해양·IB그룹으로 재편해 해양산업비중을 확대했고, 사령탑인 BNK금융지주에서도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대응 TF’도 출범했다.

◆ 지역 내 ‘외국인 금융’ 확대

BNK금융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특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울산·경남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수요도 늘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부울경 지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한 외국인 수는 17만1000명이다. 전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 동월의 14만8000명과 비교해도 15.4% 늘어 역대 최다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5일 김해금융센터·사상금융센터 등 외국인 고객 비중이 큰 13개 영업점에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서포터즈’를 배치했다. 각 서포터즈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힌디어, 베트남어, 마인어 등

각 영업점별 수요에 따라 다국어어가 가능한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경남은행도 거제와 김해, 울산 온산공단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공단에서 외국인·다문화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를 운영중이다.

◆ ‘블루오션’ 중앙아시아 진출

BNK금융은 현지 법인 출자를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아시아 금융 시장이 높은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미진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전한 것.

앞서 BNK금융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BNK 카자흐스탄 은행’을 출범했다. 국내 금융사가 카자흐스탄에 출점한 것은 신한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경영 목표는 ‘디지털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은행’이다.

BNK금융 계열사인 BNK캐피탈도 국내 민간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동시 영업 중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 국가의 인구는 도합 6500만명으로, 경제성장률도 연 4~6%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 BNK금융은 소액금융사로 영업중인 현지 법인의 점진적 인가를 추진, 각국을 연결하는 금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한 에어원 카드 플러스 혜택 이벤트 관련 포스터. /신한카드

신한카드

Air One 플러스 혜택 연말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특화 카드인 ‘신한카드 Air One(에어원)’ 플러스 혜택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먼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에어원 카드 이용 고객에게 일시불 이용 금액의 1%를 마이신한포인트로 무제한 적립해 준다. 해외 이용 시 1000원당 최대 2마일리지 적립되는 기존 카드 혜택과 별도로 제공되며, 혜택은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공항 라운지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인천공항 마티나라운지 연 2회 본인 무료 입장서비스에 동반자 무료 이용 서비스를 연 2회 추가로 제공한다. 에어원 카드 아멕스(AMEX) 브랜드로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이 혜택 대상이다.

한편, 에어원 카드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로 국내 카드 이용 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국내 항공·면세업종 및 해외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

라이프스타일 특화 알파벳카드 5종 출시

현대카드는 16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특화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파벳카드 5종을 출시했다.

알파벳카드는 알파벳이니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 카드다. ▲다 이닝(Dining)을 뜻하는 현대카드D ▲홈(Home)을 뜻하는 현대카드H ▲오일(Oil)을 뜻하는 현대카드O ▲쇼핑(Shopping)을 뜻하는 현대카드S ▲트래블(Travel)을 뜻하는 현대카드T로 구성됐다. 5종 모두 할인카드로,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청구할인 방식이 적용된다. 외식, 병원·교육, 주유, 쇼핑, 여행 등 5가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10%의 높은 할인율과 더불어 연간 최대 60만원의 할인 한도를 제공한다.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D는 일반음식점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H는 교육과 병원 업종에서 10%, 현대카드O는 모든 주유소에서 10% 할인이 가능하다.

/안재선 기자

‘보릿고개’ 넘는 카드사… 가전구독 카드로 활로 찾는다

업계, 가전업계와 PLCC 상품 확대
국민카드, 삼성 AI구독카드 선배
신한카드, LG 가전 구독고객 할인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카드사들이 가전업계와 상업자표신용카드(PLCC)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가전기업들이 가전구독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서 자 카드사 역시 관련 제휴 카드를 출시, 수익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가전업계와 손잡고, 가전 구독 모델 이용 고객을 겨냥한 PLCC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가전 기업이 구독 모델을 확대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침체된 소비 시장을 뚫기 위해 구독 혜택을 강화하며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가전구독 모델은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의 형태로 정기 구독료를 지급해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설치 및 관리, 애프터서비스(AS)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KB국민카드는 최근 ‘삼성 AI구독 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 1만원, 70만원 이상 1만2000원, 100만원 이상 일 경우 1만4000원이 각각 할인된다.

카드 상품 이용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휴면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6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아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를 자동납부 결제하면 36개월 동안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7월 LG전자와 손잡고 ‘LG전자 The 구독케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스타일러·스텐바이미 등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을 구독해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이용 실적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70만원 사이인 경우 1만3000원, 70만~130만원 미만인 경우 1만6000원, 1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2만원의 할인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 달 기준 LG전자 구독 서비스를 7만원 이상의 가격대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1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코웨이 신한카드’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코웨이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인 경우 1만3000원,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1만7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50만원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휴면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고 코웨이 렌탈상품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6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6개월간 제공한다.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컨소, GTX-B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3조 870억 규모 PF 약정식 체결
노선 추진 위한 핵심적 재무 마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5일 수도권광역행철도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등과 3조 8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수도권 교통난 해

소와 균형 발전을 견인할 GTX-B 노선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재무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건설출자자로 약정식에 참석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이번 약정은 GTX-B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본 사업의

준공을 넘어 40년 동안의 운영기간까지 순항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대우건설은 선행사업인 GTX-A의 시공경험과 다수의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GTX-B의 시공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최고의 시공품질로 적기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82.8km 구간을

연결한다. 개통시 수도권 동서축 광역교통망을 대폭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신한은행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지난 8월 4일 착공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인 공사 원가 상승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국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원자재값 내려가고 수입규제 효과… K-철강, 수익성 ‘숨통’

원료탄 187달러… 8월 대비 3.1%↓
철광석도 안정세, 연초 대비 하락
중국산 후판 34% 관세 최종 판정
열연도 최대 33.57% 잠정 부과
봉형강 수요 감소·강관 손익 우려

제철용 원자재 가격 하락과 반덤핑(A·D) 관세에 따른 수입 규제 효과로 국내 철강사의 후판·열연강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까지 철광석·원료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상황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15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제철용 원료탄은 지난 9월 기준 톤당 187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8월 평균 대비 3.1% 하락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4.6% 낮고,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근 1년 내 최고점보다는 11.9%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달러를 웃돌던 원료탄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철광석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기준 톤당 105달러로 지난달보다 3.2% 상승했지만 올해 초 대비 0.5% 낮고, 지난해 초(135달러) 대비 약 22%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사업장 전경.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전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수요 둔화가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호주 제철용 원료탄의 경우에는 주요 공급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공급이 원활히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공급과잉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철강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며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황 악화가 제품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덤핑 관세 등으로 내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방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철강사의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은 수입 규제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종 반덤



현대제철이 생산한 후판 완제품. /현대제철

핑 판정을 내리고 약 3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후판의 국내 점유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일본·중국산 열연에 대해서도 최대 33.5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후판과 열연 가격은 이미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판은 조선사와의 협상가가 톤당 80만원선까지 올라섰고 유통가는 90만원대에 안착했다. 열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통가는 지난달 톤당 87만원으로 올해 초 대비 2만원 상

승했고, 제강사 공급가 역시 전년 대비 인상됐다.

현대제철은 오는 10월 출하분부터 유통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할 계획이며, 조선업 호황이 본격화할 경우 점진적인 조선사 협상 가격 인상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사들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수입 규제 강화, 유통가 상승 기조를 토대로 후판·열연 부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봉형강은 계절적 비수기와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강관 부문은 현대스틸파이프와 미국 현지 법인의 영업손익 악화가 우려된다.

임종호 순천제일대학교 철강재료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입 규제, 유통가 인상 기조가 단기적으로 후판·열연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 등 외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사 실적 반등은 제한적이고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유혜문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스마트폰은 폴더블, 車·노트북은 ‘롤러블’ 대세

차세대 디스플레이 다변화

접는 폰 안착, 말리는 전장 주목
삼성·LG, 글로벌 프리미엄 공략

디스플레이 업계의 플렉시블 트렌드가 스마트폰(폴더블)에서 전장부품(롤러블)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소형기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접는 방식의 폴더블이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노트북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중대형 기기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말아 넣는 롤러블이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 등 업계에 따르면 폴더블·롤러블 등 차세대 유연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54억6000만달러(한화 약 21조4000억원)에서 연평균 35% 이상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약 1234억9000만 달러(한화 약 17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커버윈도우 시장 역시 올해 3억2000만달러(한화 약 4440억원)에서 2029년 7억26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주로 폴더블 모바일 기기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형 제품군에서의 롤러블 확대도 새로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형 기기는 내부 공간과 배터리 배치, 내구성 문제로 롤러블 상용화 가능성은 낮은 단계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가 지난 2020년 롤러블폰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으나 내구성과 수율, 가격 등 여러 한계를 넘지 못해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삼성 역시 롤러블보

다는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하며 ‘더 많이 접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폴더블 시장이 일정 부분 안착한 것과 달리 롤러블 스마트폰은 여전히 기술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폴더블이 유일한 혁신 폼팩터로 자리할 전망이다.

반면 중대형 기기는 부피 여유와 곡률 반경이 크고 공간 효율성 수요가 커 롤러블 적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의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가격, 제한적인 크기, 생산·A/S 부담 등으로 인해 단종됐다. 프리미엄 콘셉트로 이목을 끌었지만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

했다.

현재 TV 외 중대형 롤러블 폼팩터의 주요 수요처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꼽힌다. 차량 대시보드와 센터패시아 설계에서 곡률 자유도와 가변형 수요가 커지면서 롤러블·슬라이더를 패널 적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OLED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롤러블 상용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위로 확장되는 슬라이더블과 내부에 말려 있다가 펼쳐지는 롤러블 패널을 공개하며 프리미엄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기아 PV5 택시 전용 ‘울인원 디스플레이 2’ 출시.

기아

PV5 택시용 디스플레이 2콜·요금결제 편의성 향상

기아가 PV5를 기반으로 한 택시 영업 특화 사양인 ‘울인원 디스플레이 2’를 공개했다.

‘울인원 디스플레이 2’는 ▲택시 기사 용앱(카카오 T) ▲내비게이션 앱(카카오 내비) ▲미터앱(티머니모빌리티·이동의 즐거움) 등 택시 영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12.9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통합해 제공하는 PV5 택시 전용 옵션이다.

기존 별도의 기기나 분산 운영되던 택시 주요 기능들을 직관적인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 버튼만으로 쿨카드를 수락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시스템 사용 시 요금이 자동으로 합산돼 결제가 간소화되는 등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니로플러스 택시에 적용된 ‘울인원 디스플레이 1’ 옵션과 비교해 여러 기능이 개선됐다. 기아커넥트 및 내비게이션 기반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티 화면 등을 운전자 편의에 맞춰 디스플레이 상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유럽 전력망에 친환경 차단기 공급 확대

HD현대일렉트릭

핀란드 EPC社와 공급 계약 체결

HD현대일렉트릭이 북유럽 핀란드에서 친환경 고압차단기 공급 계약을 따내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핀란드 설계·조달·시공(EPC) 전문 기업과 145kV SF6-Free 고압차단기 1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스웨덴에 이은 두 번째 수주다.

145kV SF6-Free 고압차단기는 지구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500배

에 달하는 SF6(육불화황)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압차단기로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제품이다. 차단기는 전력 계통에서 사고나 이상 전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전류를 차단해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는 핵심 전력기기다. 최근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송, 배전망 투자 확대와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인해 변압기와 함께 차단기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친환경 고압차단기 시장 전망도 밝다. 유럽은 국제 친환경 규제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 고압차단기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 “AI는 똑똑하게, 보안은 철통같이”

원 UI 8, AI 맞춤·보안 강화 업데이트

삼성전자가 원 UI(One UI) 8 업데이트를 통해 고도화된 멀티모달 기능과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UX 및 개인 맞춤형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원 UI 8 업데이트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UI 8 업데이트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 기기를 연내 확대할 예정이다.

원 UI 8은 사용자의 일상에 더욱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제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개인화된 AI 경험을 강력한 보안 기술로 보호한다.

원 UI 7에 처음 적용된 ‘나우 바’에서

는 전화, 방해금지 모드, 삼성 월렛 등의 앱 활동을 플렉스윈도우에서 추가로 보여주고, 더 많은 서드파티(제3자) 앱과도 연동돼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나우 브리프’는 교통 상황, 주요 알림, 헬스 등 더 많은 정보를 개인 맞춤형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구독 현황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음악과 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갤럭시 위치 기반의 맞춤형 건강 인사이트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원 UI 8은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AI 기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보안 솔루션인 ‘킵(KEEP)’도 도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LG, AI 집사robot 출시 연기… 차별화 기능 재정비

中, 시장 선점… 저가 공세 나서
韓, 고도화 AI 솔루션 대응 방침
“보안기능 강화, 중요한 과제 될 것”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공지능(AI) 집사robot 출시가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로봇의 등장으로 기존 AI 집사 로봇의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AI 집사robot ‘볼리’와 ‘Q9’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IT 박람회 ‘IFA 2025’에서도 양사는 출시 시점 변동을 시사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필드테스트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빨리 극복해 출시 시기를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



AI 집사robot ‘볼리’.

/삼성전자

성전자는 볼리 출시 시점을 당초 올해 5~6월로 거론했으나 하반기로 한 차례 미뤘다.

류재철 LG전자HS(생활가전)사업본부장은 “Q9을 개발할 때 (로봇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몰랐다”며 “아직 Q9 신제품 출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양사는 올해 IFA2025에서는 볼리와 Q9을 전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는 CES2020, LG전자는 2024에서 각각 볼리와 Q9을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당장의 제품 출시보다 성능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AI 집사robot의 차별화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출시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이미 로봇청소기에 AI 기능이 탑재돼 집안 가축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안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집사robot과 로봇청소기의 주행 동선이 겹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중국 가전기업들이 집사robot 시장을 선점하면서 경쟁 구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도화된 AI 홈 솔루션 기능을 앞세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베어로보틱스

인수와 연구개발을 통해 가정용 서비스robot 분야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집사에 다양한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탑재해 아이와 반려동물 등을 살피고, 홈트레이닝 메이트로 활용하거나 재택근무 시 보조 스크린 역할을 하는 등 집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AI홈 허브 ‘쌍류온’에 Q9의 일부 기능을 이식하는 등 Q9 전략 개편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사robot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구성원처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로봇의 표정과 대화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와 교감하고 가전기기를 연결해 가사를 돕는 방향으로 품팩터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카메라 센서를 탑재한 만큼 보안 기능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왼쪽)과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부사장이 MOU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남부발전 LNG병커링 사업 활성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LNG 병커링(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과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은 2027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국내 LNG 병커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국내 LNG 병커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에너지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남부발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물류, 공급망 전반에서 함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환경 친화적인 선박 연료 공급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실현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중기중앙회·쿠팡·홈쇼핑, 물류협업 출범식

“우수 中企 제품, 로켓배송으로 경쟁력 강화”

홈쇼핑 입점 中企 로켓배송 지원
김기문 회장 “민간플랫폼 협력 강화”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쿠팡, 홈쇼핑이 중소기업들의 판로 및 물류를 지원키로 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쿠팡, 홈쇼핑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 문재수 홈쇼핑 대표, 김석원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위원회 총괄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 우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에서 (왼쪽부터)김석원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위원회 총괄위원장, 문재수 홈쇼핑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상품추천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중기중앙회·쿠팡·홈쇼핑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 로켓배송 물류망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물류협업 지원사업은 홈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쿠팡은 대소기업간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홈쇼핑은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김기문 회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홈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번 중기중앙회, 홈쇼핑과의 물류협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쿠팡의 혁신적인 물류역량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약화”

사업 제약 등 다섯 가지 문제 지적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주가부양 효과를 약화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자본 확충·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서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역행 ▲해의 주요 경쟁기업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저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사업 제약 ▲경영권 공격 노출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강제 소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상의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취득 자체가 줄어들어 단기·장기 모두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직후 15일간 단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았으며공시 이후 6개월과 1년 장기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온 자기주식을 소각만 강제하면 기업의 활용 폭은 크게 줄어든다.

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입법례도 소각 의무화한 국가가 드문 점을 지적했

다. 영국·일본·미국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 초과분에 한해 3년 내 처분 의무를 두며, 캘리포니아주는 취득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한다. 실제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대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중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이 한국(2.31%)보다 높았다.

자사주는 M&A, 교환사채 발행, 자금조달 등에도 활용돼왔다. 상의는 특히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이 중요한데 소각 의무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업종처럼 기업 간 합병이 시급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 재무구조 약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곧 사업 가능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도 크다. 지난 ‘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일 수 있었으나, 소각 의무화 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강제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려아연, 임단협 타결

고려아연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고려아연은 3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합의에는 기본급 11만8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총 1100만원, 연간 최대 400%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연장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더해지며 고려아연은 위기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력을 발휘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며 비철금속과 전략·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과 금, 은, 동 등 귀금속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102분기 연속 흑자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잇단 ‘이통사 유출·해킹 사태’… 국민 불안 증폭

정부·국회, 직권조사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차

기업 ‘자진신고’ 의존 구조 문제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부도 한계 인정… “체계 바꿔야”
정보보호 공시·ISMS 실효성 논란
실질적 제재 수단 도입 의견 제기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제도 탓에 조사가 지연되고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고, 해킹 정황만으로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연달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으로 국회와 정부 모두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해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는 KT 가입자 280여 명이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해킹 의혹을 제기했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버 접근 제어를 맡은 협력사 시큐어기가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KISA가 실제 유출 데이터를 근거로 재차 신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를 요청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셀프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과징금이나 집단소송을 우려해 기업이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에서 “정부가 해킹 정황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힘을 얻는 이유다.

국회는 이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 신고 여부와 무관

하게 정부가 침해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킹 정황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은폐와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

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논란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으로 번졌다.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킹을 막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당시에도 인증을 유지했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했다.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공시에서 보안 인력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IT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안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SMS 인증 관리·감독도 강화가 필요하다. 중대한 해킹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통신사들은 전자결제, 상품권 판매 등 사실상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 수준의 보안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누가 먼저 손해 보려 하겠느냐”며 “과징금과 소송 리스크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해커 “고객정보 확보”
SKT “유출 사실 없어”

국제 해커 조직이 SK텔레콤(SKTEL) 고객 정보를 대량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에 나서자, SK텔레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자신들을 ‘스캐터드 랩서스’라고 밝힌 해킹 단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2700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100GB 분량의 샘플 데이터를 약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SK텔레콤 경영진이 접촉해오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와 시스템 관리자 권한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해커 집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해커들이 증거로 제시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과 데이터 샘플 등을 분석한 결과, 자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데이터 역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던 SK텔레콤 유심 인증서버 해킹 사건과 피해 주장 규모가 약 2700만 명으로 동일해 눈길을 끈다. 다만 당시에는 약 9.7GB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해커들이 주장하는 100GB와는 데이터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김서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CJ올리브네트웍스가 오는 24일까지 CJ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할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비즈니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인사 등 총 10개다.

비즈니스 시스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는 식품·유통·물류·엔터테인먼트 등 CJ 계열사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 영역이다. 비즈니스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룹 전반의 업무 운영 시스템을 맡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고객 서비스와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올해 AI,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며 관련 채용을 확대한다. AI 엔지니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AI 기술 개발과 자연어 기반 AI 솔루션 서비스화, 에이전트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CJ그룹 계열사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관리한다.

서류 심사, AI 역량검사, 직무별 테스트 및 인성검사, 1·2차 면접, 인턴십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2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는 3주간의 인턴십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이 확정된다.

/김현정 기자

SKT, 오픈AI와 B2C 협력

‘챗GPT 플러스’ 구독 프로모션
B2B·그룹차원 협력확대 검토도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오픈AI와 B2C 협력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10일 공식화된 오픈AI의 한국 오피스 출범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사는 2023년 글로벌 AI 해커톤 공동 개최, MIT GenAI 임팩트 컨소시엄 공동 참여 등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됐다.

첫 단계로 SKT는 ‘챗GPT 플러스’ 구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유료 결제 시 2개월을 추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SKT 고객은 9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우주’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챗GPT 플러스는 무료 버전에 비해 빠른 응답 속도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음성 모드, 영상 생성, 심층 리서치 등 확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심층 리서치’는 다단계 추론을 통해 대량의 온라인 정보를 분석·종합해 리포트 형태로 결과를 제공한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휴대폰으로 챗GPT를 켜는 여성의 이미지.

SKT와 오픈AI는 B2C를 넘어 B2B와 그룹 차원의 협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이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SKT의 AI 전략인 ‘자강과 협력’ 기조와 맞닿아 있다. SKT는 AWS, 엔트ropic,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AI 혁신기업 연합체 K-AI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비수도권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GP UaaS(서비스이용형 GPU)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 중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LG U+, 웹툰 기반 숏드라마 공개

‘스튜디오 엑스 플러스 유’와 맞손
오는 30일부터 총 8편 순차적 릴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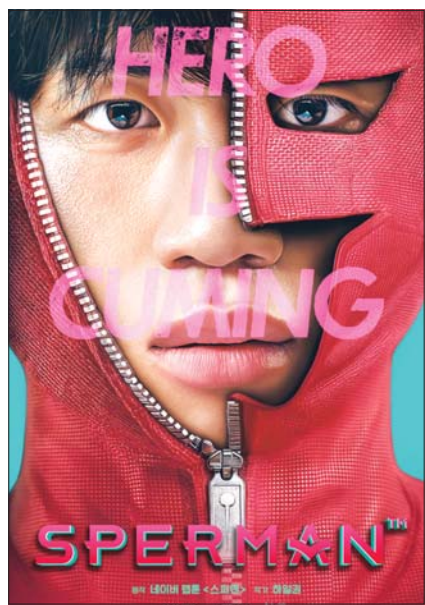
네이버는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엑스 플러스 유(STUDIO X+U)’와 협업해 만든 웹툰 IP(지식재산권) 기반의 숏드라마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막장 악녀 ▲자판기 ▲자매전쟁 ▲스퍼맨 등 네이버웹툰의 인기 IP 4편이 숏드라마로 되살아난다. 기존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드라마화된 작품들은 원작 재현과 함께 숏폼 포맷에 최적화된 연출과 구성으로 팬층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STUDIO X+U의 오리지널 IP로 제작된 ▲수지수지 ▲신들린 로맨스 ▲여이면 죽는다 ▲상사에게 저지른 나쁜 짓 등 신작 4편도 함께 공개된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을 통해 웹툰 IP의 영상화 역량과 숏폼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결합,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흐름에 최적화된 짧고 몰입도 높은 숏드라마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총 8편의 숏드라마는 ‘막장 악녀’를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네이버TV와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순차적으로 릴리즈된다.



네이버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네이버웹툰 ‘스퍼맨’을 숏드라마로 만들어 공개한다. /네이버

특히 치지직에서는 드라마 공개와 함께 실시간 같이보기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숏드라마 ‘막장 악녀’의 주연 배우 4인과 치지직에서 활동 중인 인기 스트리머가 드라마를 시청하며 후일담과 비하인드스토리를 나누는 코멘터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웹서비스의 이재후 부문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정보보호 비용, 생존위한 핵심투자… 대표가 보안 관리해야”

금감원, 여전사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
빠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사이버 침해사고와 가계부채 부담에 직면한 여전업계에 금융감독원이 ‘정보 보호 강화’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계기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금감원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취약자주 지원과 모험자본 확대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14개 여전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여전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한구 중소기업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카드사·캐피탈사 CEO들이 자리했다.



이찬진(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은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원칙

을 갖고, 대표이사가 직접 보안 인프라를 점검하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빠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해킹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야간·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카드 사용 중지나 재발급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가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운영 등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연장 자체, 고령층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통해 소외계층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이 과도하게 위축되

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여전사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등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신기술금융업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허용,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업권의 투자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보고·신고 의무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사 CEO들은 취약자주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제시장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부동산 PF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업무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23~25일 중 공포·시행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시행되며, 세부 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도 함께 개정·고시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1 거래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일반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30억원) ▲사업계획의 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가격 일치 시 자동 체결, 기업 재무정보·기초자산 운용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공매도 금지, 임의적 계시글 삭제 금지 등도 포함됐다. 기존 샌드박스 운영 때 불편했던 증권사 간 결제 제한도 해소된다. 예약결제원 연계를 통해 투자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쓰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져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분야 역시 변화가 크다. 카사(부동산 기반)나 뮤직카우(저작권 기반) 등은 지금까지 자체 발행 증권만 중개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단일 거래소에서 유통된다. 투자자는

플랫폼 하나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투자할 수 있어 선택지가 크게 넓어진다.

샌드박스 사업자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지분 70%를 인수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이 우선 심사 대상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이미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신청·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환금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자산 유통화를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식 유통시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 투자에서 나타나는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증시 활성화 맞춰 상반기 31.7조 공급”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간담회 김정각 사장 “외화주식 담보로 취급 증권사의 보유증권 활용 제고 지원”

“한국증권금융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태동하던 시기인 1955년에 설립돼 지난 70년간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6일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증권금융의 지난 7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3대 경영전략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 ▲자본시장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이다.

김 사장은 “올해는 증시 활성화와 증권업계 대형화 등에 맞춰 상반기 기준 약 31조 7000억원을 금융투자업계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투자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기존에는 담보 활용이 불가능했던 외화주식을 담보로 취급하는 등 증권사의 보유 증권 활용도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1956년 3월 당시 약 700만 원 규모로 시작한 증권사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상반기 평균 약 31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시킬 정도로 성장했다.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 결과, 올해 자기자본 4조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2022년 21.43%에서 지난해 23.85%까지 오르는 등 자본 건전성도 개선됐다.

앞서 증권금융은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중부센터’를 수원 광교에 개소했으며,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6일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CEO)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2026년을 1분기를 목표로 기존 홍콩사무소의 홍콩법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NH·한투·KB·신한·삼성증권 등 6개사다.

더불어 증권금융은 자본시장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위기 시 증권금융 자체재원 등으로 3조원 이상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화 투자자에게 외화 재원을 활용해 외화 유동성 공급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화 관련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화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환관련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외화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상대방 확대, 외화채권 운용 등 운용수단 다변화 및 외화채권 발행과 같은 외화 조달 경로 확충 등 외화 관련 업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증권금융회사 간 다자간 협력을 약속하는 ‘증권금융 협약식’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총 5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배구조 개선… 삼성생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만원→18만7000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등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다.

16일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우수한 펀더멘털과 더불어 회계처리 변경 및 지배구조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생

명의 13회차 유지율 89.7%, 25회차 유지율 68.9%, 초회 유지율은 커버리지 생명보험사 중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적극적인 종신보험 비중 축소와 질병보험 비중 확대, 고수익성 상품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확대를 통한 펀더멘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해지율 가중, 물량 차이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 조정 비중이 높지만, 생보 특성상 해지율 변동의 민감도도 높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CSM 성장률은 6.3% 수준으로, 생명·손해

보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이는 건강·상해 중심의 안정적 성장의 결과 확인”이라며 “CMS 조정은 종신보험에서 건강·상해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연내 밸류업 공시 기대감이 유효하고, 삼성화재의 지분 2.2%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주당 순이익(EPS) 상향을 근거로 주당배당금(DPS)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6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

한전, 협력사 지원제도 전면 개편 고품질 기자재·해외 공동진출 속도

인센티브 혜택 총 12개로 확대
계약보증금 면제 등 비용 지원
인증제도 신설·명판 부여 추진
공급사 평가기준 자체별 세분화
BIXPO 무대에서 우수 협력사 시상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급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력설비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이 목표다.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다. 'KEPCO Trusted Partner' 브랜드 사용 우대, 품질 등급 가점 부여, 감사패 수여 등 기존의 5개 항목에 추가하여, 제도적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 12개의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약보증금 면제 ▲환경인증 비용지원 ▲공인인증시험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뉴시스

또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기자재공급사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명판(KEPCO Star Supplier)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공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견학 등 소통 워크숍도 개최한다.

인센티브 확대에 발맞춰 우수공급사 선정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업

신용, 기술개발 노력 외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자체그룹별로 평가를 시행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품질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계약 규모를 고려한 적기 납품, ESG 경영 노력도 등 실질적 항목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기자재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기자재 공급 기반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수 협력사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기자재를 확보하고, 안전 중심의 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수 협력사와 함께 해외 송배전 시장 공동진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9월부터 평가를 거쳐 10개 우수공급사를 선정, 11월 열리는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트랩’ 농가 보급 전 현장점검 박차

농진청, 6개 시·군 시범사업 진행

농촌진흥청이 '무인예찰 포획장치'(AI트랩)의 농가 보급을 위한 최종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16일 전남 보성 AIT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공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남 보성과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이다.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 1대가 한 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시기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장치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각 지역 관찰재배지에서 장치를 적극 활용해 해충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표준화하면, 장단기 예찰과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동시다발적 해충 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잡초, 향염·미백 화장품으로 재탄생

국립생물자원관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 연구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확인된 향염·피부미백 효능이 기업에 기술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 추출물은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NO) 생성을 최대 90%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지난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푸른방동사니. /뉴시스

썬폴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 출시된다. 또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11월 13~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 전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공정위, 85개 불공정 약관조항 개선
컬처랜드 등 10개사 연내·내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최근 환불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6일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컬처랜드, 기프트쇼 등 10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계약해지·재판관할 조항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환불 원칙 보

장 등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포인트나 캐시로만 지급하거나, 발행일 기준으로 환불 기간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거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모두 수정됐다. 앞으로는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자금세탁, 현금강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까지 보장된다.

문화상품권·컬처랜드 등 7개사는 연내 시행,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998건)가 환불 거부 관련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의무화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음료업계 적용

대규모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재생원료가 최소 10% 들어간 투명 페트병을 사용(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

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마무리해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

간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된다.

김고용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의료 공백 해소 확대

농협중앙회가 농촌지역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주말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농업인·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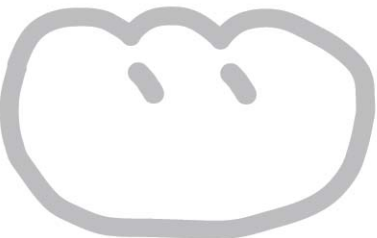
행사에는 하동 도원한의원과 하동군민여성의원 의료진이 참여해, 양·한방 통합 진료를 비롯해 침 시술, 피부

질환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운영 현장에서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농심천심 운동' 실천 결의가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며, 농업인 진료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농촌 왕진버스의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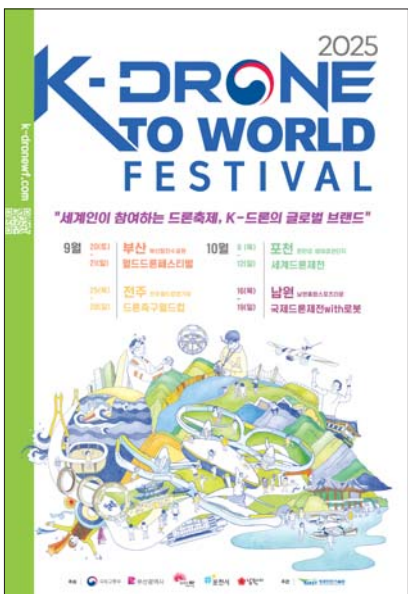
부산·전주·포천·남원서 ‘K-드론’ 글로벌 축제 발판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열어
K-드론 글로벌 브랜드화 도모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개최된다.

행사는 오는 20일~21일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9일~12일 포천세계드론제전, 10월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 개최된다. 우선, 부산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



‘K-Drone to World Festival’ 포스터.

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

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20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20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20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비트펠라하우스)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열고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Drone Formula League) 국제대회를 비

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각 지자체들에게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드론 레저 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현재 기자 hjkoo@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기장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선정

부산 기장군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정관읍 방곡지구가 행정안전부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최종 선정지로 확정,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 완료 시 약 5.4ha 면적의 상습 침수구역에서 근본적인 재해 위험이 해소돼 주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내달 2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경상북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열고 도정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경북 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보건·복지, 농축산·수산업, 전통문화·예술, 도정 혁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제출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경상북도 기관홈), 전자우편, 일반 우편,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정읍시

입영 청년에 입영지원금 지급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182명의 청년이 18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앱(chak)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市 전역서 청년주간 축제 열려

창원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2025 창원 청년주간 ‘창원청년 함께 온: 나’를 시 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인 창원청년 함께 온: 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인다는 방언적 표현과 ‘온(on)’과 ‘나’를 결합한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표출하는 가치들로 청년주간을 채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청년주간은 창원시와 창원창년비전센터에서 주관하는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계 기관과 기업·단체도 협력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산청군, 호주서 농식품 2.7만弗 판매

시드니서 농식품 홍보 판촉전 열어
총 7개 업체·17개 농특산물 선보

산청군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농식품 홍보 판촉전에서 상당한 판매 성과를 올렸다.

산청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전은 해외 수출 판로 확대와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품목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드니 대표 한인 유통 매장인 서울 마트 호른스비점과 웨스트라이드점에서 진행한 판촉전에는 총 7개 업체가 참가했다. 꽃감, 참기름, 건나물류, 도라지배정, 쌍화차 등 17개 품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2만 7000달러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제품 시식 및 설명을 통해 산청 농식품의 우수 성과 전통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은 세계 농식품 시장의 개방



산청군 호주 시드니 농산물 홍보판촉전.

/산청군

화 추세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출 기반 마련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캐나다 판촉전을 비롯해 10~11월 미국 판촉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의령군, 풍수해 생활권 정비 공모 선정

정비 사업비 398억 확보

의령군이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의령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정 백야지구 정비 사업비 3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규 지구 3곳을 포함한 총 16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2026년에는 280억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중앙 부처 및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령군의 전략적 공모 사업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단위 시설별

재해 위험 요소를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도비 지원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행정적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선정된 지정 백야지구는 백야천과 성당천의 반복적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지속된 지역이다. 의령군은 이 지역에 제방 축조, 배수 펌프장 증설, 교량 재가설 및 신설, 유입 수로 설치, 낙석 방지망 설치,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이와 별도로 화정 덕교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가래 개성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기타 재해 예방 관련 공모 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며 소규모 재해 위험 요소까지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경남도, 내달부터 32% 인하 추진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총 3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마창대교와의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이다. 경남도는 국제중재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총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사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20% 할인에 12% 추가 할인이



더해져 총 32% 할인이 적용된다.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2030년 6월까지 추가 할인을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 비중은 전체의 34%에 달하며 이 중 80%가 도민이다.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은 1만 6000대이며 이 중 약 1만 2800대가 경남도민이다.

추가 할인 적용 시 소형차량은 2500원에서 1700원으로 800원,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900원, 대형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1100원, 특대형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1500원 각각 인하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지역경제 살릴 ‘골목맛집’ 선정

선정된 20곳에 인증 현판 수여
공식 홍보채널 등 다각적 지원

포항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미식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포항골목맛집 20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시민 추천, 영업주 자율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접수된 71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시민투표, 전문가 암행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포항골목맛집 20선’에는 금돼지고깃집(대이동), 김나운찜쌀떡(우창동), 대잠맨선우드

파이어(장량동), 망고찜지(상대동), 멕시코코(두호동), 삼육식당(오천읍), 영일대해담(두호동), 오대양물회(중앙동), 오렌지스네이크(환여동), 우항원(중앙동), 임곡원조춘전닭갈비(동해면), 장룡민물장어(해도동), 총각네상회(상대동), 카페브리아(장량동), 쿠마스시(우창동), 포항수타(장량동), 팡할매떡볶이(중앙동), 함박웃는룻(오천읍), 해풍미당(장량동), 흥해시래기(상대동) 등이 포함됐다.

시는 최종 선정된 업소에 ‘포항골목맛집’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공식 홍보채널과 맛집 안내서,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1000만 고객과 함께 달린다” 러닝족 위한 굿즈·대회 풍성

롯데백화점 ‘스타일런’ 티켓 완판
쿠팡 무한도전 IP 협업 굿즈 선봬
롯데웰푸드 ‘설레임 런’ 큰 호응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유통업체가 고객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직접 러닝 대회를 열어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가 하면, 한정판 굿즈로 ‘인증 욕구’를 자극하며 젊은 러닝 인구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2025 스타일런’ 5시간 만에 완판

백화점 업계는 직접 대규모 러닝 대회를 개최하며 마케팅 전면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이 다음 달 19일 송파구와 함께 여는 ‘2025 스타일런’이 대표적이다. 올해 7회차를 맞은 이 대회는 K-패션 브랜드 ‘마텔킴’과 협업한 러닝 키트와 늘어난 참가 인원(6000명)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 5시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매진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올해는 티켓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진행된 스타일런,

/롯데백화점

을 20% 늘렸음에도 판매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말했다. 롯데는 앱에 ‘스타일런 클럽’을 론칭하는 등 잠실을 ‘러닝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더현대 서울에서 실내 트레드밀 러닝 대회인 ‘더 현대 서울 런’을 진행했으며, 갤러리아백화점은 ‘러닝 갤러리아’를 열고 인플루언서와 고객이 함께 호수공원을 달리는 행사를 열었다. 백화점들은 이러한 행

사를 통해 입점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용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젊은 고객층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정판 굿즈와 체험형 콘텐츠

러닝 마케팅은 백화점을 넘어 전 유통 채널로 확산 중이다. 특히 최근 행사는 실제 달리기보다 한정판 ‘굿즈’나 ‘경험’ 자체가 더 중요한 참여 동기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얼마 전 SNS에

“마라톤을 대신 뛰어주는 대신 주최 측이 주는 메달과 선물을 달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마라톤으로 추정되는 ‘산리오 X 올리뷰영 큐티 런’은 산리오 캐릭터가 새겨진 한정판 굿즈를 제공하며 캐릭터 팬덤까지 끌어들었다. 쿠팡은 인기 예능 ‘무한도전’ IP와 협업한 Run with 쿠팡플레이를 열어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식 굿즈를 단독으로 선보

편의점, 라면·계란·화장지 등 대대적 할인

‘2차 소비쿠폰’ 소비자 공략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1차 지급 소비통계 바탕 할인경쟁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22일)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대규모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1차 쿠폰 지급 당시 편의점에서 간편식은 물론 신선식품과 생필품까지 구매하는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용에 제한적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트(SSM), 백화점과 달리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자유롭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4사는 1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당시 소비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인기 품목이었던 라면, 즉석밥, 계란, 화장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 예정이다.

GS25는 1차 쿠폰 지급 후 2주간 국·탕·짜개류 매출이 293% 급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대

국민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자체브랜드(PB) ‘디얼프라이스’의 계란, 두부, 화장지 등 생필품 10종에 대해 제휴카드 결제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디얼 신선계란(15입)’은 3680원, ‘디얼 천연펄프 화장지 24롤’은 87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인기 라면 19종은 1+1, 2+1 행사에 QR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6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CU는 1차 쿠폰 지급 당시 한달간 즉석밥(37.0%), 라면(32.6%) 등 민생 품목 매출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행사에서는 화장지를 최대 69% 할인하고, 인기 컵라면 번들(6입)은 33% 할인한다.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국내산 훈제오리(400g) 5900원, 냉동우삼겹(800g) 9900원 등 신선식품을 한정 수량 특가로 운영하며, 카스·테라 등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6종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간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고객들의 생필품 구매처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규

모 프로모션으로 민생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8일부터 ‘민생 회복 초특가전 시즌2’를 열고 2200여 개 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신선식품, 라면, 생필품 등 40여 종의 핵심 상품은 ‘N+1’ 행사와 함께 토스페이,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제휴 결제 시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체감 할인율을 극대화했다. 애호박, 계란 등 신선식품 10여 종을 최대 20% 할인하고, ‘순수프리미엄30롤티슈’ 등 롤티슈 3종은 최대 7000원 할인에 추가 할인을 더했다. 처음처럼, 참이슬 등 소주 박스(20입)는 2만6000원에 내놓는다. 정은기 세븐일레븐 팀장은 “내수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마트24는 1차 쿠폰 지급 후 8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한 결과 두부, 계란 등 신선식품 매출이 25% 증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손종욱 기자

정관장, 조선왕실 비법 담은 ‘궁정비차’

진생 기율·온율·영지 3종 출시

정관장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위한 건강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궁정비차 진생기율·진생온율·진생영지’ 3종을 출시했다.

‘정관장 궁정비차’는 500년 조선 왕실 기록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 원료와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편의성을 더한 프리미엄 티 브랜드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는 임금을 위한 건강차에 관한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당시 궁중에서 차와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궁정비차 진생기율’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허준의 건강차 레시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6년근 홍삼농축액에 정관장이 엄선한 진피, 대추, 생강을 더하고 은은한 감귤 향을 입혀 풍미를 한층 높인 점이 특징이다.



궁정비차 진생영지.

/KGC인삼공사

‘궁정비차 진생온율’은 국정운영과 후학양성으로 격무가 잦던 정조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용된 4가지 전통원료(천궁·작약·당귀·숙지황) 배합을 비롯해 약쑥과 익모초, 그리고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을 함유해 활력증진에 탁월하다.

영조가 평생 즐겨 찾던 인삼과 귀한 영지버섯을 담은 ‘궁정비차 진생영지’는 보양과 마음 안정을 위한 건강차다. 여기에 귀한 상황버섯추출물과 깊은 풍미의 대추농축액을 더해 바쁜 일상 속 몸과 마음의 휴식이 모두 필요한 이들에게 적합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獨 맥주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맛보세요”

하이트진로, 국내 독점 출시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No.1 맥주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를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옥토버페스트만을 위해 연 1회 한정판 양만 생산하는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를 올해도 국내 독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9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로 뮌헨에 기반을 둔 단 6개 양조장의 맥주만 판매된다.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맥주는 그 중 하나로 축

제에서 판매되는 맥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 제품이다. 도수는 6.0%로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과 오래 지속되는 거품의 완벽한 균형이 특징이다.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는 한정량만 생산으로 국내에서는 생맥주 제품만 일부 업장에서 소진시까지 판매한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0일부터 CJ프레시웨이와 식음 서비스를 운영중인 12곳의 골프장에서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생맥주를 판매한다. 특히 시흥 ‘솔트베이GC’, 가평 ‘프리스틴밸리GC’, 용인 ‘세현CC’ 3곳에서는 미니 팝업 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오는 28일까지 패션쇼핑축제 ‘패세라’

롯데쇼핑의이커머스(전자상거래)플랫폼 롯데온이 가을 시즌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패션 쇼핑 축제 ‘패션 쇼핑 라인업(패세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기간 할인 쿠폰 제공과 함께 명품 소품 등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빈폴패밀리, 지오다노, 막스마라, 코오롱맨즈, 시아주, 제이씨패밀리, 베럴, 제토스트릿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최대 25% 할인 쿠폰과 백화점 패션 전용 10% 중복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카드사별로 최대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슈퍼 ‘990원 발포주’ 선보여

캔 하이볼 ‘마이 볼’ 발포주 ‘쿼트’ ‘고물가 시대’ 초가성비 주류 확대

롯데마트와 슈퍼가 초가성비 주류 라인업을 확대한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이달 18일 오프라인 단독으로 캔 하이볼 ‘마이 볼(MY BALL)’ 3종과 스페인산 발포주 ‘쿼트(QUART)’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캔 하이볼 ‘마이 볼’은 레몬, 샤인머스켓, 유자 3가지 맛으로 구성됐으며, 6캔 구매 시 9900원(캔당 1650원)이다. 스페인산 발포주 ‘쿼트’는 500ml 대용량임에도 990원이라는 초저가에 내놓는다. 직소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주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관련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출시한 4900원짜리 칠레 와인 ‘테이스티 심플’ 2종은 출시 직후 각 와인 상품군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롯데마트·슈퍼 송규현 주류팀 상품기획자는 “롯데마트와 슈퍼를 찾는 고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주류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성비 하이볼과 발포주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고객 취향에 맞춰 차별화된 가성비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K-뷰티, 美·日 등 유통망 확장… 글로벌 성장 이어간다

오프라인 경험 통해 신시장 개척
에이피알 美 ‘얼타 뷰티’ 입점
스킨1004 인도 등 신흥 국가 공략
토니모리 홍콩 18호점 매장 공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해온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1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현지에서 브랜드 활동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은 4438억원으로 전체 매출 593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1671억원, 일본 732억원,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631억원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유통망 확장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이 주효했다. 에이피알은 최근 미국 최대 규모 화장품 유통 업체 얼타 뷰티에 입점했다. 에이피알 대표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 핵심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 등 총 22종을 얼타 뷰티 전 지점에서 선보이고 있다. 얼타 뷰티는 미국판 올



지난 6월 23일~7월 6일 홍콩에서 여린 ‘메디큐브’ 단독 팝업 스토어 행사장 전경. /에이피알

리브영으로 불리는 등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중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에이피알은 이번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에서 고성장을 기록하기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해당 국가 전체 지역으로 진출 범위를 넓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상권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홍콩에서의 경우 몽콕, 침사추이 등 유명 쇼핑 명소에서 행사를 마련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대해 관심을 모았다.

인디 브랜드 스킨1004는 올해 들어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 다양한 K뷰티 신흥 국가를 적극 개척해 성과를 거뒀다.

스킨1004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82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도 연간 매출을 조기 달성했다. 이 중 서구권 매출은 122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3% 수준이다. 또 아프리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2%, 남미 매출은 711% 등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린 뷰티 박람회에 연달아 참여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인접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을 다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45%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평균 62%에 달하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고, 7월에는 1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스킨1004가 인도 최대 뷰티 플랫폼 ‘나이카’를 통해 인플루언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스킨1004

124%의 성장을 보였다.

스킨1004는 새로운 K뷰티 격전지를 선제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특히 현지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할 계획이다. 1세대 로드숍으로 알려진 토니모리도 해외에서 매장을 추가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달 홍콩 정관오의 로하스 파크 주거단지 중심에 위치한 ‘로하스 몰’에서 홍콩 18호점 매장을 새롭게 공개했다. 십수 년에 걸쳐 고객 유입이 확보되는 우수 상권을 파악해 왔고 이번에는 젊은 소비자층에 중점을 뒀다. 신규 매장은 홍콩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군을 중심으로 총 850여 제품을 판매한다.

북미 시장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특히 얼타 뷰티 ‘멕시코 1호점’에 신규 입점해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8월말 멕시코 시티의 복합 문화 공간 안타라 패션 홀에서 문을 연 멕시코 1호점은 얼타 뷰티가 미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 내놓은 오프라인 매장이다. 향후에도 멕시코 내에서 얼타 뷰티 매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니모리도 이에 발맞춰 입점을 추진한다.

이러한 판로 다각화와 함께 토니모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축한다. 국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브랜드로 설치한 ‘본셀’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토니모리 수출 매출은 2023년 361억원, 2024년 407억원 등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3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는 브랜드 성장에 중요하다”며 “K뷰티가 K문화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같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결합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웅제약, AI 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 ‘앞장’

광주시·광주 동구 등 업무협약
‘AI 헬스케어 센터’ 조성사업 참여

대웅제약이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등과 함께 ‘인공지능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기업을 위한 행정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하며 인공지능 산업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한다. 광주 동구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운영한다. 대웅제약은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를 연구개발하며 지역 사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대웅제약은 광주 동구가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콤플렉스 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이 센터는 기업 창업, 주민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합 시설이다. 대웅제약은 누구나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직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왼쪽부터),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업무협약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센터에서 건강 데이터를 축적해 스마트병원, 정밀의료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예방, 진단, 관리 등을 통합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과 스타트업을 연계한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광주가 가진 인프라와 실증 환경은 기업 혁신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의 우수한 인공지능 인프라와 결합해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교촌에프앤비, 미드윌셔점 리뉴얼 오픈

‘교촌家’ 콘셉트… 자동화 기술 도입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미드윌셔(Mid-Wilshire) 점’이 약 7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15일(현지시간)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새 단장한 미드윌셔점은 2007년 미국에 첫 진출해 글로벌 사업 시작을 알린 교촌이 오픈한 첫 해외 매장이다. 브랜드의 해외 확장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교촌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국 전통미를 가미한 인테리어와 ▲자동화 기술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브랜드 정체성과 매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미국 LA ‘미드윌셔점’ 전경 /교촌에프앤비

‘교촌家’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 기술을 융합해 매장을 새롭게 꾸몄다. 운영 시스템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교촌은 매장 효율화를 위해 검증된 주방 자동화 기술을 전면 도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에스티, 면역·염증질환 신약개발 추진

사이러스 테라퓨틱스 공동연구 계약

동아에스티는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면역 및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동아에스티의 전임상 및 임상 역량과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저분자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다. 차세대 단백질 분해 기술을 활용해 분자접착분해제라

스텝 등을 독자 구축했다.

동아에스티 김미경 연구본부장은 “이번 공동연구 계약은 동아에스티의 핵심 치료 영역인 면역·염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저분자 화합물 중심의 신약 개발 전략을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바이오의약품, 항체·약물결합체(ADC),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확장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양사의 역량을 결집해 면역 및 염증 질환 분야에서 베스트 인클래스 표적단백질분해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LB웹, 1개월 영업정지… “품질문제 아냐”

“품질평가 보고서 미작성으로 행정처분”

HLB그룹 내 웹타이드 소재 전문기업 HLB웹이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산 품질 향상 재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웹은 지난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원료의약품 ‘데

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및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제조 업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 규모는 13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 62억원 대비 약 2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48조제9호, 제95조 등과 관련된다. 다만, 제품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도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HLB 측은 “지난 2022년, 2023년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 품질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며 “이후 2024년부터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해 제조 중인 모든 품목에 연간 품질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시 | 9월 24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주제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시 2025년 9월 24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HYUNDAI, KMA
 - 등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김학도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허원호 기아 국내 PBV 전략팀장 : 물류 산업에 PV5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강 연	14:50~15:20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 로봇택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15:20~15:50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 AI 드론의 무한한 확장, 미래 물류 혁신의 출발점
	15:50~16:20	강종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물류 모빌리티 전기다목적자동차 산업육성
	16:20~16:50	강인호 피코이노베이션 이사 : 중소제약사들이 뭉쳐 만든 피코이노베이션의 물류혁신 스토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나눔의 달' 맞아 사회공헌 활동

포스코퓨처엠은 특별 봉사활동 기간인 '나눔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전국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포항 본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제작하며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청림해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다.

/포스코퓨처엠



SKB-세종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SK브로드밴드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성수 SK브로드밴드 유선·미디어사업부장,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HDC현산, 강릉 가뭄에 생수 10만병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10만병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한 생수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강릉시 전역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왼쪽 다섯번째부터)김상영 강릉시 부시장, 이창섭 HDC현대산업개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소장 등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HDC현대산업개발



SKT-SKB, IBC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 방송·미디어 전시회인 IBC 2025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 환경·지속가능성 부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류성걸 픽스트리 개발본부장, 나태영 SK텔레콤 Gen AI개발팀장, 조현준 SK브로드밴드 미디어Tech본부장이 수상 후 상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SKT



LG U+, 은행 방문 영유아에 '아이들나라' 제공

LG유플러스는 우리은행을 방문하는 영유아 고객을 위해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양사가 함께 진행하는 '배려·프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은행 지점 내 배려프리석에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LG전자, 잠실야구장서 '무적LG그램데이' 행사 진행

오는 17일까지 사전 이벤트 운영
카카오톡 공유 시 경기티켓 증정

경기당일 포토존·체험존 등 마련
LG 그램 노트북 등 경품 증정도

LG전자가 프로야구 LG트윈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오는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무적LG그램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적LG그램데이 사전 이벤트로, 먼저 해당 일 경기 티켓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인당 2매의 경기 티켓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페이지와 자세한 참여 방법은 LG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적LG그램데이 야구 티켓 증정 이벤트 이미지.

/LG전자

이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당일에는 잠실야구장에 'LG그램처럼 가볍게 승리하자'는 테마로 브랜드존을 열고 LG트윈스 응원 포토월, 제품 체험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브랜드존 방문객들에게는 무적

LG 미니 깃발, 그램 부채 등 LG 트윈스 응원 도구를 제공한다.

경기장 내·외부에서 100% 당첨 럭키드로우, 그램AI 퀴즈, 전광판 이벤트, 직판 인증샷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럭키드로우 경품으로는 LG 그램

노트북, 울트라랩, 노트북 파우치, 마우스패드, LG트윈스 유니폼·야구공, 예코백, 간식세트 교환권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행사당일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날 이벤트를 진행, 참여자 대상 LG 그램 프로 노트북, 울트라랩 등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제품 체험존에서는 지난달 LGE닷컴 단독 출시 후 열흘 만에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한 외장그래픽 탑재 LG 그램 프로 등 신제품들을 사용해볼 수 있다. 2025년형 LG 그램 프로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는 '멀티AI' 기능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 외장그래픽까지 탑재하고도 무게는 단 1.36kg, 두께는 1.58cm(16Z90TR 기준)로 초경량 노트북의 휴대성을 갖췄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협력사와 상생 도모

현대백그룹, 추석 맞아 결제대금 조기지급

중소 협력사 9000여곳에 시행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000여 개 중소기업에 결제대금 210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한섬, 현대에버다임, 대원강업, 현대바이오랜드, 현대퓨처넷, 현대면세점, 현대L&C, 지누스, 현대드림투어, 현대이지웰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현대백화점이 거래하는 7000여 곳을 포함해 14개 계열사가 거래하는 2000여 곳이 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는다. 결제대금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현대백화점그룹 본사 사옥 전경. /현대백화점

다음 달 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부터 상품이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금 6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 파트너사 자금 부담완화 지원

1.1만개社에 8957억 조기 지급

롯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만 1155개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895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명절 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슈퍼,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등 23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대금은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 앞당겨 지급된다.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 머니투데이 ◇승진 △김상현 편집부장 ◇전보 △이인규 편집국 선임기자(부국장)

부음

▲ 황봉주(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씨 별세, 신원엽씨 배우자상, 태웅·유지미 부친상=16일,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62-606-4000.

/손종욱 기자

대한항공,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김포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부터
캄보디아 보수·교육 봉사 등 실시

대한항공이 유기견 보호부터 지역사회 어린이 지원,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기견 봉사단은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을 찾아 유기견 보호소 청소 및 시설 보수 등 환경 정화와 사료 배급, 산책·놀이 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사내봉사단사랑나눔회는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프람크나 지역에서 현지 학교 배수관을 보수하고, 음악·미술 특강 등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2007년부터 매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 인프라를 개선해 왔다.

대한항공 부천 정비공장 봉사단체 사나사(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봉사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람크나 지역에서 사랑나눔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항공

단은 지난달 30일 인천 지역아동센터 소속 조순 및 편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야외 물놀이 체험 행사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창의인재 프로젝트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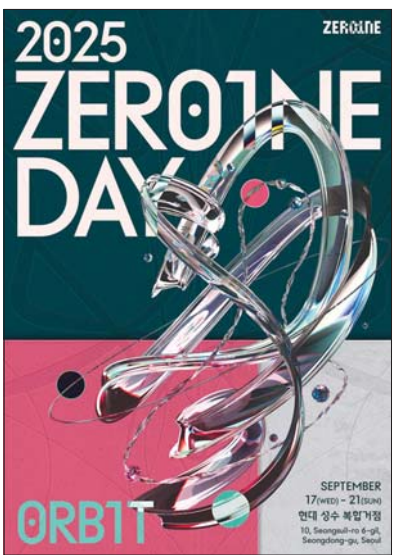
서울 성수동서 '제로원데이' 진행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는 제로원(ZERO1NE)이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현대 성수 복합거점에서 '2025 제로원데이'를 개최한다.

제로원은 창의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이 만든 창의공간이자 인재 플랫폼이며, 제로원데이는 다양한 분야 인재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와 사업 모델을 선보이는 행사다.

'2025 제로원데이'의 전시 주제는 '제로원 귀적'이다. 제로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현대차그룹 임직원 같은 사내외 창의인재가 각자 레도에 따라 움직이며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다.

제로원은 ▲인공지능(AI) ▲로봇릭스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를 선



'2025 제로원데이' 포스터

보인다. 이번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는 총 20개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크리에이터와 현대차·기아 임직원 간 협업 프로젝트, 제로원 육성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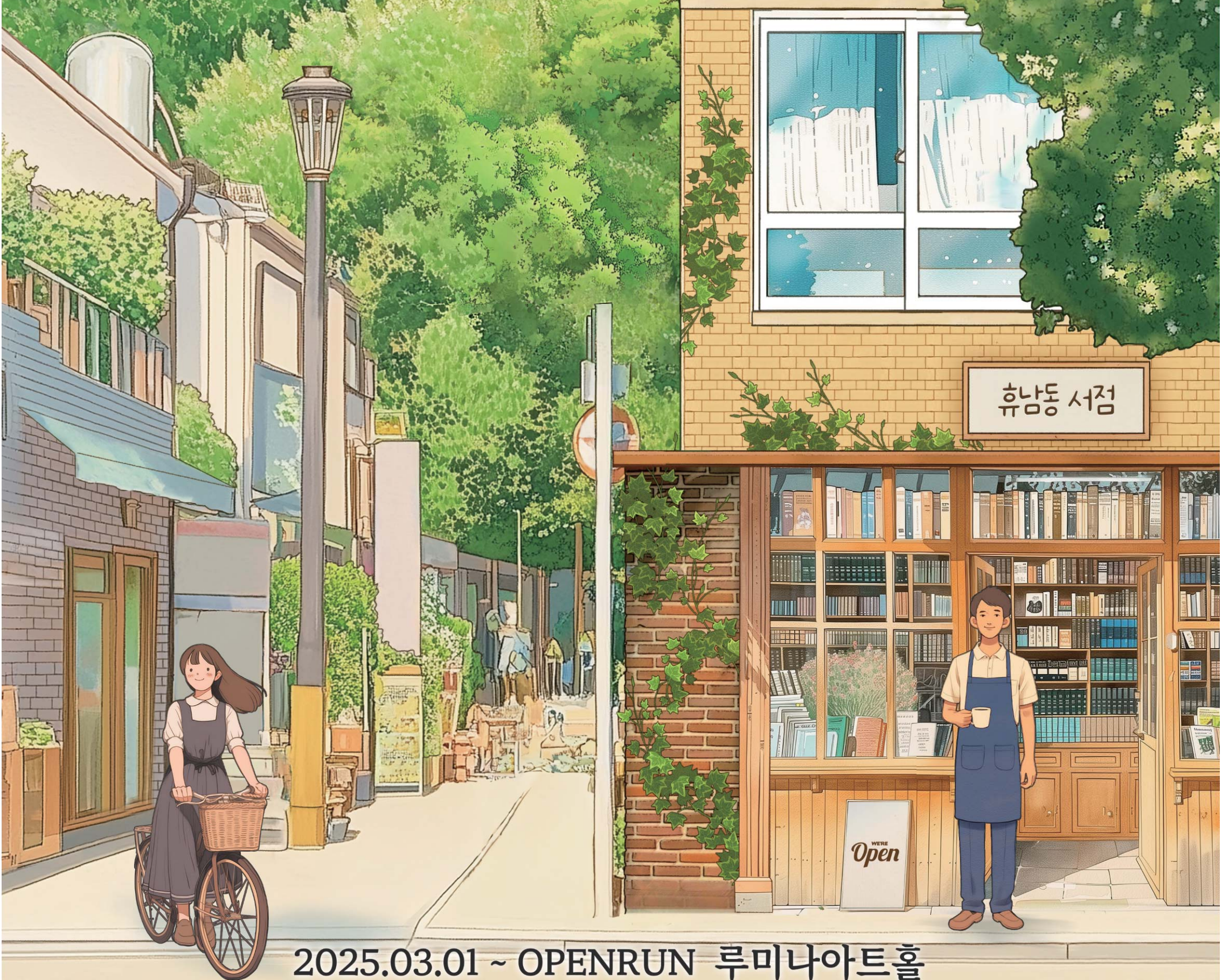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중장년 위기, 복지국가의 긴급한 과제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중장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 인력이지만, 그 내면은 고용 불안정과 관계 단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주로 50세를 넘어가면서 주된 일자리에 서 밀려난 이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다시 일터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급격히 낮아진 임금은 자존감을 허물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잠식한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면서 외로운 섬이 된 중장년들이 늘면서, 일부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다.

중장년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장년을 오직 경제활동 인구로만 간주하며 이들의 생존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미래의 노인이 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빈곤, 건강보험,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보편화로 중장년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에게는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력난을 겪는 산업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

한편, 사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크게 저하된 중장년을 위해 노인처럼 공공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중장

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다.

이와 함께, 우울, 고립, 은둔형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집 밖 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중장년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은 우리 사회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곧 미래의 노인이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을 위한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K-엔비디아 골든타임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산업 패권을 가르는 핵심 무기가 됐다. 한국이 독자적 AI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생태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AI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와 제도 보완이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능성은 이미 증명됐다.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는 메타의 8억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오픈 AI와 손잡았다. 이후 GPU 없이 지속가능한 엔터프라이즈 AI미래를 시연했다. 최근 퓨리오사AI는 자체 AI 추론 가속기 RNGD(런게이드)를 활용해

gpt-oss 120B 오픈소스 모델을 구동했다. gpt-oss 120B는 오픈AI가 공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퓨리오사는 두 개의 RNGD칩만으로 대규모 모델을 실시간 챗봇에 적용하며 GPU 대비 훨씬 낮은 에너지 소비와 표준 데이터센터 수준의 전력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중고 규모 데이터센터에서도 고성능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다. 더욱이 AI칩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력 효율적이고 병렬화가 극대화된 구조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GPU 인프라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비용과 냉각 설비가 부담으로 떠올랐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계속 등장하려면 결국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선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원하고 해외 출원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쟁력 없는 특허를 국내에만 쌓아두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AI 스타트업 평가지표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 AI산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장 이후 기업 밸류에이션이 반토막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연구개발보다 단기 실적에 쫓기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AI 기업들은 '버티기 경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K-엔비디아를 실현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산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시작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 7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사방이 잠깐하니 곧 새벽이 온다. 48년생 혼자서 가는 출장길. 60년생 돈을 빌리면서 주식은 하지 않도록. 72년생 오늘이 내일을 뒷받침하니 겸손으로 행동. 84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지켜야.



37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49년생 현 상황이 천국이니 환경을 바꿀 생각은 접는 것이. 61년생 동료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접어보자. 73년생 실천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해보자. 85년생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자.



38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50년생 빗내서 빗을 갠다. 6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 74년생 어디를 가든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하지 말았는데. 8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39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51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이니 다른 이성 관계는 정리를. 63년생 무난한 것이 결과를 원만히 할 터. 75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87년생 오후에 뚝딱의 좋은 일.



40년생 매수문서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52년생 환심을 사서 투자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아채도록. 64년생 자영업은 잘 생각해야 한다. 76년생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니 기본대로 하는 안행을 조심. 88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41년생 거레에 인정이 있게 해야. 53년생 권불심년생은 재물에도 마한가지로 적용되니. 65년생 봄의 향연에 능력이 넘쳐난다. 77년생 좋은 일이 거듭될수록 약속을 중요하게. 89년생 기러기발을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게 하니 소리가 나겠는가.



42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꾸니 무덤도원에서 대접받는 기분이다. 54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66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견디자. 78년생 내가 하는 생각은 상대도 할 수 있으니. 90년생 세월 앞에서 무슨 사망 타령인가.



43년생 꽃만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55년생 아름다운 여자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67년생 오후 5시부터 운전 주의. 79년생 사랑은 허망하기도 하다. 91년생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일일 수도.



44년생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기 마련이니. 56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68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80년생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보라 꿈은 이루어진다. 92년생 하나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45년생 행동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57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보람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69년생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81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마티도 부담이. 93년생 친구 간의 우정이 남아있어 모임에 간다.



46년생 손조로운 하루이다. 5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하지만. 70년생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 82년생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의 기운에서 벗어나야 발전. 94년생 이혼은 지옥행이니 기술을 배우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47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여차피 혼자 가는 여행. 59년생 오늘이라도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자. 7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편하다. 83년생 아침부터 종일 운전 천천히. 95년생 배우자에게 주려는 생각을 접고 자금계획을 세우도록.



김상회의四季

공생

자연계에서는 같은 부류가 아니더라도 종류가 다른 동물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악어와 악어새, 총매화와 곤충, 콩과 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나 벌과 꽃들이 그러하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당장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여도 한두 단계만 거치면 도움이 되는 예도 있다.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라 시간이 걸릴 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를테면 말벌이나 거미 같은 혐오(?) 곤충들의 존재가 그러하다.

말벌은 한 번이라도 잘못 쏘이면 생명을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작은 곤충 한 마리라 하더라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해마다 봄이나 가을 말벌에 쏘여 병원 신세는 물론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뉴스를 탄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보자면 말벌은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해충을 먹어 치우니 만약 말벌이 사라진다면 해충들은 더 난리를 피게 되고 지구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식량부족 사태도 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말벌을 조심하고 피하기는 하되 적대시하며 말살할 일이 아니다.

거미 역시 보기에는 징그럽고 무섭지만,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는 적고 이런저런 해로운 벌레를 먹이로 삼으니 일종의 해충 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하듯 세상의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 존재 의미가 있다. 사람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 수 없다. 못지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이나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새들도 계절에 따라 이동할 때 우두머리가 제일 앞에서 서면서 시뭇형으로 대열을 이루어 움직이고 동물들 역시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나르고 다른 동물과 맞선다. 단체가 혼자일 때 보다 위험의 대처나 먹이 사냥에 유리함을 아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이드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9	1	8	2	6	7	9	8
7	2	8	6	9	9	2	1	
8	6	9	1	1	7	9	8	2
9	9	1	9	8	1	2	6	
2	1	6	7	9	8	8	1	9
1	8	9	6	8	1	2	9	7
9	8	8	2	1	1	6	7	9
6	1	2	9	7	9	8	2	1
9	7	1	9	8	2	1	6	8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3650

스도쿠3650

결론스도쿠110

초보자부터 12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학생 100명 중 3명 ‘학폭 경험’ 교실서 ‘언어폭력’이 가장많아

서울시교육청, 초4~고3 전수조사
올해 피해 응답률 2.9%, 0.5%p ↑
가해 응답률 1.1%, 0.2%p 상승

서울 초·중·고 학생 100명 중 약 3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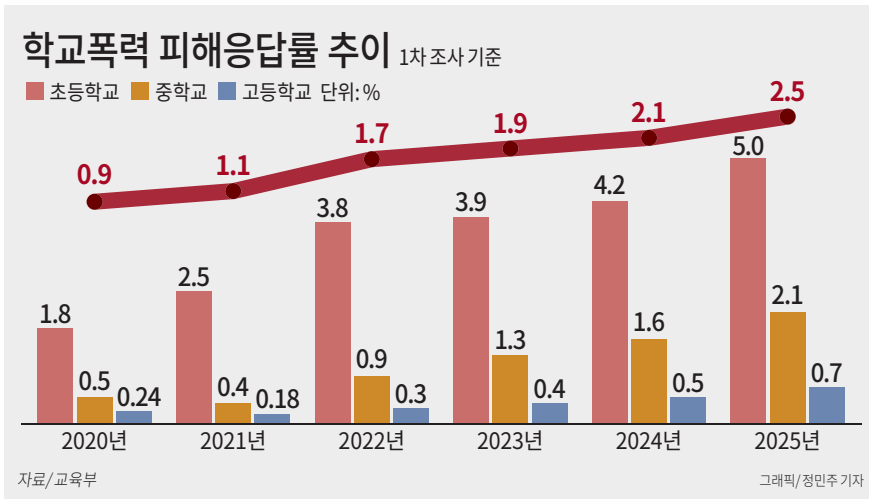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2024년(2.4%)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0.6%포인트, 중학교가 0.5%포인트, 고등학교가 0.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1%) 순으로 나타나 언어폭력이 여전히 가장 두드러진 문제임을 보여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복도·계단(29.8%)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59.2%), 점심 시간(35.3%)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응답률도 증가했다. 2025년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1.1%로, 전년도(0.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초



등학교에서 0.3%포인트, 중학교에서 0.2%포인트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역시 7.2%로 2024년(5.9%)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포인트, 중학교 1.5%포인트, 고등학교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목격 후 반응으로는 ‘피해학생에게 위로와 도움 주기(34.6%)’가 가장 많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31.2%),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16.7%), 가해자 말리기(16.6%)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또한 중·고등학생도 학교폭력 발생시 당사자 동의를 거쳐 관계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상담, 당사자 간 조정 및 화해, 관계회복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적 관점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신학기 초에는 ‘관계가꿈’ 전문단체(38개, 633명)를 관내 191개교 1081학급에 파견해 학급 단위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긍정적인 또래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강의 위주의 예방교육을 넘어 학생 참여형 문화예술 공연(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도입해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양화하는 시도도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경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등 4대분야 종합지원

2030년 공공일자리 1.2만개로 확대

서울시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담은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과 복지관에서의 행정지원 같은 일반 사무보조형, 요양보호사 보조·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와 같은 취업연계형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어난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도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된다.

/이현진 기자

광명시, 27일 ‘정원문화축제’ 개최

새빛공원에서 색모래 놀이 등 진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가을 정원에서 시민이 함께 놀고 쉬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7일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2025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색모래 놀이 ▲풀피리 연주 교실 ▲정원 식물에게 이름표 달아주기 ▲네잎클로버 코인 찾기 ▲울룩볼록 거울놀이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광명시 시민정원사들이 협동조합을 이뤄 운영하는 ▲꽃 바람개비 만들기 ▲꽃·곤충·동물 목걸이 제작 ▲디폼블럭 꽃 화분 ▲꽃 팔찌 ▲조약돌 아트 프로그램은 손으로 직접 만들며 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시, 운정청소년센터 조성공사 착수

AI·드론 등 4차산업 교육공간 조성

파주시가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시설인 ‘운정청소년센터’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운정청소년센터는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일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된다. 기존 노인복지관이 있던 4층과 유흥공간이던 7층을 비롯해 2·4·6·7층, 총 3,245㎡ 규모가 청소년 수요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해 추진된다. 파주시는 기존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미래 역량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과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내부에는 인공지능(AI), 드론,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공간이 들어선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선행학습 유발 광고 2년새 10배 급증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2022년 16건→2024년 166건 적발
강경숙 의원 “특단의 대책·점검 필요”

소위 ‘초등 의대반’ 처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3000원, 2023년 17억6073만 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

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초등 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NYT와 소속 기자 4명 상대로 20.68조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사진 뉴시스
▲‘왕실 동경’ 트럼프, 오늘 영국 국빈방문…이례적 두 번째 초청

▲美,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발효…연방 관보 게재
▲“러 최대 정유공장, 우크라 공습에 핵심 시설 가동중단”

▲中왕이, 폴란드에 “관세에 중·EU 함께 저항해야”
▲日, WTO 담당 대사 주제네바대표부에 첫 배치…美 관세 등 대응



굿즈·대회 등
1000만 러닝족
적극 공략
L1

metro®

Life

K-뷰티
오프라인 매장등
글로벌 유통망↑
L2



맛보고, 즐기고, 기념하고... 한옥서 만난 커피 한 잔의 환대

Q 르포

동서식품 '맥심가옥'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체험공간 운영
전통 한옥에 '환대'의 메시지 풀어내
아이스크림, 단호박 더한 스페셜메뉴
한복대여·포토존 등 특별한 추억까지

천년고도 경주가 올가을 특별한 커피 향으로 물들고 있다. 동서식품이 오는 26일까지 운영하는 브랜드 체험 공간 '맥심가옥'이 그 주인공이다. 전통 한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꾸며진 이곳은 맥심 커피가 전하고자 하는 '환대'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지난 11일 방문한 경주시 포석로 오름돌담길 인근에 자리한 맥심가옥은 낮은 돌담과 전통 기와가 어우러져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냈다.

입구에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눈에 띄었다.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곳곳에 그려진 귀여운 맥심 캐릭터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입구인 '환대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안내소인 '어서오소'에서 직원이 맥심가옥 안내책자와 시음용 컵을 건네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커피 애호가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맛있당'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맥심 커피믹스와 인스턴트 커피, 원두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취향에 따라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맥심가옥 환대문.



'가베 기미상궁' 코너에서는 세 잔의 커피를 시음하고 모카골드·화이트골드·슈프림골드 중 어떤 제품인지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맥심가옥을 찾은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대여하는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식품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가옥' 전경.

특히 맥심가옥 한정 스페셜 메뉴가 큰 인기를 끌었다. 모카골드와 크림을 조합한 '맥심 오름', 화이트골드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색동저고리', 슈프림골드와 단호박을 조합한 '호박달당' 등을 맛볼 수 있다. 기자는 '색동저고리'를 선택했다. 알록달록한 비주얼과 아이스크림, 맥심커피의 조화가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맛있당 한 칸에서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베 기미상궁' 코너에서는 세 잔의 커피를 시음하고 모카골드·화이트골드·슈프림골드 중 어떤 제품인지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맛과 향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지만, 방문객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맞는 방문객에게는 경주 명물 황남빵을 증정한다. 옆에는 미니 맷돌을 직접 돌려 원두를 갈아보는 '맷돌 그라인딩 체험', 화로불 모형 위에서 커피를 데우는 '화로불 브루잉 커피' 체험존이 마련됐다.

방문객 A(37)씨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맷돌에 커피원두를 갈아봤는데 커피향이 솔솔 올라와 기분이 좋았다"며 "친구와 함께 왔는데 가을 소풍을 온 것 같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맛있당'을 나와 '행복하당'으로 이어지는 잔디밭에는 셀프 촬영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맥심가옥에서 대여하는 노란 계열의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은 잔디밭에 설치된 조형물을 배경삼아 촬영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인생네컷' 콘셉트를 차용한 '한지 맥심네컷' 포토부스에서 앱을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야외 노천카페에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맥심 커피를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커피 제품 맞춰보는 '기미상궁' 코너
원두 직접 갈아보는 맷돌 그라인딩 등
다양한 체험존 마련... 즐길거리 풍부
하루 약 3000명 찾는 명소로 자리잡아

맥심의 감성을 담은 제품을 직접 만들고 즐기는 DIY 체험형 공간 '행복하당'에서는 자개 키크링과 민화 부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고종의 서재를 콘셉트로 한 '왕의 서재'에서는 독서와 붓글씨 필사를 하며 책갈피를 만들 수 있다.

일정 시간이 되면 보부상이 등장해 깜짝 이벤트를 시작한다. 정원 한켠에 마련된 '가베'에서 커피믹스 스틱 모양 옷을 던지는 윷놀이, 제기차기, 커피믹스 투호놀이에 참여해 승부에 이기면 상품을 얻을 수 있다. 현장은 전통놀이와 브랜드 체험이 결합된 색다른 재미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찾은 '맥심이당'에서는 맥심 브랜드의 뿌리와 국내 커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히스토리존에는 맥심 브랜드 탄생 배경과 변천사가 사진과 스토리보드로 전시돼 있다. 맥심가옥 한정 패키지와

각종 굿즈도 구매할 수 있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가옥은 개장 초기부터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평일 하루 약 2000명, 주말에는 3000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맥심골목'이 한 달간 12만명을 끌어모은 데 이어 또 한 번 지역 명소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진행되는 맥심가옥은 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환대의 의미를 전통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체험 공간"이라며 "앞마당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맥심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이 오감으로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주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책방', 부산 '모카사진관', 전주 '모카우체국',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 등 특색이 뚜렷한 전국 주요 공간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명예의 전당'故유상철 감독 아들 "아버지 사랑해주셔서 감사" /사진 뉴시스
▲정몽준 명예회장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서 국민께 기쁨 주길"

▲한일장신대, KUSF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
▲'리드오프 출격' 이정후, 3타수 무안타...4경기 연속 침묵

▲세계문화유산 종묘서 담벼락 기와 훼손...경찰, 용의자 추적 중
▲'반값' 관광열차·비수도권 숙박 3만원 할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